

보도시점 2025.11.12.(수) 11:00 < 11.13.(목) 조간 > 배포 2025.11.12.(수)

K-패션, 푸드, 뷰티 등 한류 연관산업을 K-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

- 통상교섭본부장, K-패션 기업 무신사 방문 및 유통업계 간담회 -
- 「한류 연계 K-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」 연내 발표 예정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.12(수)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K-패션 선도기업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을 방문하여 K-패션 수출 현황을 점검했다. 또한, 무신사, 딜리버드코리아, 쿠팡, CJ올리브영, 컬리 등 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K-소비재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.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K-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K-소비재 수출도 증가하는 가운데, 역량과 경험을 갖춘 유통 플랫폼을 통한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산업부는 한류와 연관된 K-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 먼저,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K-소비재 프리미엄화를 추진한다. 한류박람회, K-POP 콘서트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한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, 지원 방식도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통 플랫폼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두 번째로, 물류, 인증, 지적권 등 수출기업 애로를 끝까지 해결한다. KOTRA 현지 무역관과 협업하여 소비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물류 인프라를 지원하고, 할랄 등 국가별 상이한 해외인증 정보 제공 및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. 마지막으로, 해외 역직구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. 우리 유통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물 구축 및 홍보 지원, 현지 물류 파트너와의 연결, 통관·인증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여 본부장은 “우리 유통 플랫폼은 해외 소비자와 K-소비재를 연결하는 ‘핵심 가교’로, 역량있는 우리 유통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우리 중소·중견 기업 제품이 세계인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”고 하면서, “K-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,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「한류 연계 K-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」을 연내 발표할 계획”이라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태우 (044-203-4020)
		담당자	사무관	전기성 (044-203-4023)
			사무관	서두원 (044-203-4024)

참고

통상교섭본부장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

□ 일시/장소 : '25.11.12(수) 16:00-17:15 /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

□ 참석자 : 통상교섭본부장(주재), 무역정책과장 등 10명

○ (지원기관) KOTRA, 무역보험공사, 무역협회

○ (기업) ^{패션}무신사, ^{유통}딜리버드코리아, ^{유통}쿠팡, ^{뷰티}CJ올리브영, ^{식품}컬리

□ 주요내용 : ①K-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및 유통기업 의견 수렴

②유통 플랫폼과 중소·중견기업 동반진출 방안 논의

< 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순서(안) >

시 간	내 용	
16:00~16:17(17')	무신사 매장 시찰	
16:17~17:15(58')	K-소비재 유통기업 간담회	
16:17~16:20(3')	• 모두 발언	통상교섭본부장
16:20~16:23(3')	• 소비재 수출 지원방안 설명	무역정책과장
16:23~17:13(50')	• 자유토론	참석자
17:13~17:15(2')	• 마무리 발언	통상교섭본부장